

---

#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우현\*, 임상호\*\*

## Study on the impact of each family communication type on children's use of media

Woo-Hyun Lee\*, Shang-Ho Lim\*\*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미디어 이용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TV(F=6.719, p<.05), PC(F=7.713, p<.05), 휴대전화(F=6.404, p<.05)이용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지향형인 권위형은 TV 이용에서는 이용시간이 많고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PC 이용에서는 오락적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대화지향인 협의형은 TV 이용에서는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선호하였으며, PC 이용에서는 정보적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의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커뮤니케이션 유형, 가족 커뮤니케이션, 아동 미디어, 미디어 이용 시간, 미디어 활용방안

**Abstract**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examine how the type of family communication shows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use of media to draw up effective measures to use media. The result of study is that meaningful differences showed according to the time spent watching TV(F=6.719, p<.05) and using PC(F=7.713, p<.05) or cell phone(F=6.404, p<.05). The authoritative type pursuing obedience preferred entertainment programs and spent much time watching TV and preferred entertainment games when using a PC. The deliberating type pursuing conversations preferred educational and informative programs when watching TV and informative programs when using a PC.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lessons learned to draw up measures for children to effectively use media based on the study results.

**Key Words** : Communication type, Family communication, Children's media, Time using media, Measures to use media

---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뉴미디어가 생활전반에 걸쳐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의 아동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가 결합된 IPTV, 디지털유선방송, DMB, DVD, 컴퓨터와 전자 게임, MP3, 스마트 폰 등 수많은 융합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즉 활자

와 전파를 넘어 지금은 정보통신 미디어가 급속히 발전해 대다수의 아동이 다양한 시청각 매체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TV, 인터넷, 비디오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한 학습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호기심을 유발해 능동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고,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지나치게 몰입하여 중독으로 연결돼 신체적, 심리적, 학습적인 어려움 등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TV 등과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과정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2월 29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1월 15일

같은 미디어는 수용이 용이하고 일상화되어 있기에 아동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로써 아동의 행동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TV 시청에 대해 나이가 어릴수록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과가 있고, 상당수의 연구들이 부모의 아동에 대한 TV 시청지도가 자녀의 시청습관이나 비판적 시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미디어 이용 습관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관련하여 Ritchie(1991)[1]는 크게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형 가족, 다원형 가족, 권위형 가족, 방임형 가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형태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형태에 따른 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으로 구분하고, 또한 협의형 가족, 다원형 가족, 권위형 가족, 방임형 가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아동의 미디어 이용의 차이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1970년대에 McLeod와 Chaffee[2] 등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아동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영향에 관심을 두고 동료, 교사, 특히 부모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학습한다는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아동이 주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준거 틀을 정의해 준다고 하였다. 즉, 자녀들이 경험하는 대면적 상호작용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삶의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법을 정의해 준다. 따라서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파악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행위양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전통적으로 가정규범에 대한 공통된 의견의 측정을 통해 파악되는데, McLeod와 Chaffee 등은 가족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념 지향적인 가족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보살피주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며, 때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유형이고, 사회 지향적인 가족 유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논쟁을 피하고 모두에게 합치되는 지향 점을 추구하며 가족 내의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긍정적으로 관련된다. Ritchie(1991)는 사회지향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개념지향은 가족 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서로에게 대화로 전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순응지향과 대화지향 차원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순응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대화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4가지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구성하였는데, 대화지향은 높고 순응지향은 낮은 다원형 가족, 대화지향은 낮고 순응지향이 높은 경우는 권위형 가족으로 자유로운 논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잦은 가족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둘 다 높은 경우인 협의형 가족은 자유로운 대화를 강조하면서, 가족 간의 동의를 함께 요구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대화지향과 순응지향 모두 낮은 경우로서 가족 간 대화가 거의 없는 방임형가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처럼 Ritchie의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기존의 개념 지향적, 사회지향적인 관점을 보완하여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의 수정된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구성하였고, 대화지향과 순응지향은 각각 개방형과 문제형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선행연구

가족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주로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구성원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매스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연구,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로 나타나고 있다.

Libes와 Ribak(1992)은 이스라엘의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른 아랍문제에 대한 정치태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다원적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가진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아랍 문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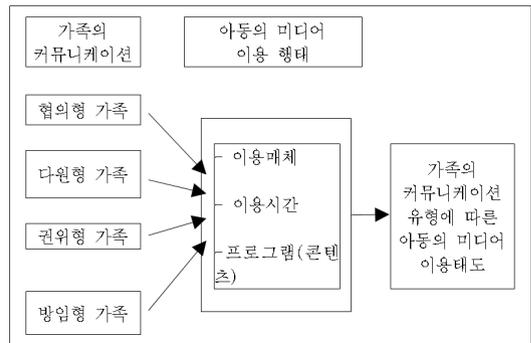
대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보호형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가진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방순화, 2005, 재인용)[3]. 이는 부모가 매번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가족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아동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Lull(1980)[4]은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에 따라 TV사용에 대한 가족의 의도와 동기가 다를 것이라 가정하고 가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사회지향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가족은 TV를 가족이 모여 있는 곳에 마치 배경처럼 일상적으로 켜놓으면서 대화의 유희유 같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념지향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가족은 TV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가 가족커뮤니케이션 규범으로써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해당 가족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분위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사회지향(순용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가족보다 개념지향(대화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가족일수록 대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아이들의 의견표명에 대해 개방적이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띄게 되며, 매스미디어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 공공 프로그램의 선호, 그리고 미디어 내용에 대한 부모의 부가적인 설명과 미디어 내용에 대한 자율적 사고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 3. 연구의 방법

#### 3.1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족 환경 안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아동의 미디어 이용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용 미디어는 조사대상자의 70%이상이 보유하고 있고, 이용량이 1시간 이상 되는 TV, PC, 휴대전화로 선정하여 이용 시간, 프로그램(콘텐츠)을 측정하였다. 연구도구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Ritchie(1991)가 제작한 RFCP(Revised Family Communication Pattern)를 이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독

립변인을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정하고, 종속변인을 미디어 이용 시간과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어떠한지, 이에 따른 미디어 이용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 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 3.2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이용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은평구의 초등학교 6학년 4학급의 학생 110명과 강서구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교회의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33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 중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5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3.3 조사도구와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TV 시청과 PC, 휴대전화 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가정하고, 독립변인으로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하위변인인 대화지향적 차원과 순용지향적 차원으로 구성된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다원형, 권위형, 협의형, 방임형)과 종속변인으로 시청량(이용량)과 프로그램 선호도의 관계에 대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15문항은 대화지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11문항은 순용지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 Program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계산하였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TV, PC, 휴대전화의 이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미디어 보유에 대한 조사에서 TV와 PC는 모든 조사대상자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문은 87명(69.6%)의 가정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비디오(VCD, DVD)는 104명(83.2%)의 가정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로는 휴대전화는 94명(75.2%), MP3는 67명(36.2%), 게임기는 64명(51.2%)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 조사 대상자는 대화지향(3.06)이 순응지향(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화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평균값인 3.06을 기준으로 125명의 표본을 이분화 하였는데 그 결과 상위집단이 76(60.8%)명, 하위집단이 49(39.2%)명이었다. 한편 순응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평균값인 2.63을 기준으로 표본을 이분화 한 결과 상위집단은 68(54.4%)명, 하위집단은 57(45.6%)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미디어 이용 시간은 TV의 경우, 전체 125명 중 67.2%인 84명이 하루 1~2 시간 정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2~3시간이 25명(20.0%), 1시간 이내가 15명(12.0%)으로 나타났다.

PC이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125명 중 61.6%인 77명이 1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2시간이 30명(24.0%), 2~3시간이 18명(14.4%)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인 125명 중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인원은 94명이었으며, 이중 84.0%인 79명이 1시간 이내의 사용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8명(8.5%)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7.4%인 7명은 1~2시간의 사용량을 보였다.

MP3 이용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인 125명

중 67명이 MP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50.7%인 34명이 1시간 이내의 사용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어 28명(41.8%)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7.5%인 5명이 1~2시간의 사용량을 보였다. 게임기 이용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125명 중 64명이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48.4%인 31명이 1시간 이내의 사용정도를 보이고 있고, 이어 29명(45.3%)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6.3%인 4명이 1~2시간의 사용량을 보였다. 신문은 조사대상인 125명 중 87명의 가정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1명이 1시간 이내로 신문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다수인 76명은 신문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중 104명의 가정에서 비디오를 비롯해 DVD, VCD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04명 모두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미디어별 프로그램 선호도는 TV는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 정보 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C이용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이 가장 높고 이어 사교,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서는 오락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통신과 정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미디어 이용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TV 이용시간은 권위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협의형, 방임형으로 나타났다. 다원형은 가장 낮은 시청 량을 나타냈다.

<표 1>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TV 이용시간

가족유형	TV 이용시간			F	P	Scheffe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협의형	39	2.79	.522	6.719	.000	권위>다원
다원형	37	2.49	.607			
권위형	29	3.10	.409			
방임형	20	2.65	.745			
Total	125	2.75	.604			

$p < .05$

<표 1>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TV 이용시간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TV 이용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719, p < .05$ ).

〈표 2〉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PC 이용시간

가족유형	PC 이용시간			F	P	Scheffe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협의형	39	3.05	.686	7.713	.000	협의>다원, 권위, 권위>방임
다원형	37	2.62	.594			
권위형	29	2.90	.724			
방임형	20	2.25	.550			
Total	125	2.76	.700			

p<.05

〈표 2〉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PC 이용 시간은 협의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위형, 다원형으로 나타났다. 방임형은 가장 낮은 이용량을 나타냈다.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PC 이용 시간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PC 이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713, p<.05).

〈표 3〉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시간

가족유형	휴대전화 이용시간			F	P	Scheffe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협의형	28	2.82	.476	6.404	.001	협의>방임
다원형	28	2.43	.573			
권위형	22	2.59	.503			
방임형	16	2.06	.772			
Total	94	2.52	.617			

p<.05

〈표 3〉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 시간은 협의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위형, 다원형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404, p<.05).

〈표 4〉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TV 프로그램

구 분	오락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M	SD	M	SD	M	SD
협의형(N=39)	3.21	.522	2.97	.280	2.72	.686
다원형(N=37)	3.03	.372	2.86	.347	2.57	.603
권위형(N=29)	3.24	.511	2.55	.572	2.21	.620
방임형(N=20)	2.85	.745	2.10	.788	1.95	.605
F(p)	2.984(.034)		16.802(.000)		8.272(.000)	
Scheffe	협의>권위, 방임 권위>방임		협의>권위, 다원>방임 권위>방임		협의>권위, 방임 다원>방임	

p<.05

〈표 4〉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TV 프로그램 이용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TV 프로그램은 평균값에 의한 분석에서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권위형, 협의형, 다원형, 방임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협의형, 다원형, 권위형, 방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권위형, 협의형, 다원형, 방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TV 프로그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TV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984, p<.05).

〈표 5〉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PC 프로그램

구 분	오락 프로그램		사교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M	SD	M	SD	M	SD
협의형(N=39)	3.21	.615	2.64	.628	2.51	.721
다원형(N=37)	3.11	.458	2.38	.545	2.30	.777
권위형(N=29)	3.28	.649	2.66	.484	2.28	.528
방임형(N=20)	2.65	.489	2.45	.605	2.25	.444
F(p)	5.688(.001)		1.965(.123)		1.138(.337)	
Scheffe	협의, 다원, 권위>방임		-		-	

p<.05

〈표 5〉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PC 프로그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PC 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688, p<.05).

**〈표 6〉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휴대전화 프로그램**

구분	통신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M	SD	M	SD	M	SD
협의형(N=28)	2.10	1.429	2.28	1.555	1.36	.903
다원형(N=28)	2.05	1.290	2.30	1.412	1.35	.857
권위형(N=22)	2.21	1.320	2.41	1.524	1.24	.830
방임형(N=16)	2.10	1.165	2.25	1.251	1.25	.786
F(p)	.075(.947)		.072(.975)		.319(.811)	

p<.05

〈표 6〉은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프로그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프로그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본 연구는 아동들이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TV, 컴퓨터, 핸드폰을 중심으로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형태에 따른 가아동의 미디어 이용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이론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생 12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에서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TV, PC, 휴대전화의 이용시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선호 프로그램에서 TV와 PC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에서 대화지향적인 성향이 순응지향적인 성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미디어인 TV, PC의 경우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프로그램은 TV의 경우, 드라마, 쇼, 코미디, 영화, 만화영화, 스포츠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C는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오락적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 문자 메시지보다 음악, 영화, 게임, 동영상, 사진 등의 오락적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TV, PC, 휴대전화의 이용시간과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한 조사 결과,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TV, PC, 휴대전화의 이용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V 이용시간에서는 순응지향성이 높은 권위형이 높게 나타났고, PC와 휴대전화의 이용시간에서는 대화지향성이 높은 협의형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TV시청량과 선호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PC의 이용량과 선호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를 도출한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PC의 일부 선호 프로그램과 최근 그 보급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선호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연구의 한계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초등학교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후의 후속연구에서는 한정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미디어 이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가정 내의 미디어 교육과 관심에 대한 내용은 조사하지 못했다.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함께 미디어 이용 및 관심을 추가 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차이는 어떠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1] Ritchie, L. D.(1991),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 epistemic analysis and conceptual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548-565.
- [2] McLeod, J., & Chaffee, S.(1972).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In J. Tedeschi. (Ed.), *The social influence process* pp. 50-59), Chicago: Aldine-Atherton. 1972.
- [3] 방순화(2005). 가족커뮤니케이션유형이 가정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Lull, J.(198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social uses of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7(3), 319-334.

## 이 우 현



- 2008년 2월 : 용인대학교 관광학과 (학사)
- 2010년 2월 : 용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3년 1월 ~현재 : 국제문화대학원대 사회복지와 평생교육(박사과정)
- 관심분야 : 사회복지, 평생교육

· E-mail : 71korea@hanmail.net

## 임 상 호



- 2000년 8월 : 숭실대학교 경영지도학과 (경영학석사)
- 2011년 10월 :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육학박사)
- 2011년 10월~현재 : (사) 한국청소년지도학회 회장
- 2009년 9월~현재 : 국제문화대학원대 국제융합경영전공 주임교수(교학처장)

· 관심분야: 융합교육, 사회교육

· E-mail : ipi@dreamwiz.com